

신규 대졸자 교육계열별 취업 현황

- 매년 신규 대졸자 약 30만 명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취업 현황은 교육계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신규 대졸자의 졸업 후 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5년¹⁾ 전체 취업률²⁾은 64.4%, 진학률은 7.9%로 나타났음.
 - 교육계열별로 의약계열 취업률이 83.2%로 가장 높았고 교육계열 취업률이 50.8%로 가장 낮았음. 공학계열의 경우 취업률(71.3%)과 진학률(11.5%)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인문계열 취업률은 57.7%로 취업상황이 특이한 교육계열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취업률을 기록함.
- 학과 분류 체계 중분류³⁾에 해당하는 35개 전공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의료, 약학, 간호 전공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등교육, 음악, 법률은 낮은 취업률을 나타냄(그림 1 참조).
 - 의학계열과 공학계열의 경우, 모든 중분류 전공에서 취업률이 2015년 전체 취업률인 64.4%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과 인문계열 전공별 취업률의 경우 초등교육 전공을 제외한 전 전공에서 전체 취업률을 하회하고 있음.
 - 특히 중등교육 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43.0%를 시작으로 2015년 39.3%까지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한정된 중고등교사 임용인원과 해당 전공 졸업생 간의 불균형을 보여줌.
 - 세부 전공별(소분류 121개 학과)로 2015년 기준 취업률 하위 5개 학과를 살펴보면, 인문

1) 2016년 12월에 발간된 「취업통계연보」 상에 제시된 2015년 신규 졸업자 취업률이 가장 최신 자료임.
 2) 해당 자료의 취업률은 신규 졸업자 중 취업과 관련 없는 진학자, 입대자 등을 제외한 인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며, 여기서 취업자란 조사 기준일(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업활동종사자, 1인창업자, 프리랜서가 포함된 개념으로 일반적인 취업자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3) 「취업통계연보」 상의 학과 분류 체계 중분류(35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14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의 분류 체계를 적용함.

〈표 1〉 각 연도 신규 대졸자 졸업생 수 및 취업률, 진학률 현황

(단위 : 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신규 대졸자	졸업생 수	293,913	298,868	294,952	301,606	322,407
	취업률	(65.5)	(66.0)	(64.8)	(64.5)	(64.4)
	진학률	(8.3)	(8.4)	(8.4)	(8.5)	(7.9)
인문계열	졸업생 수	37,938	39,024	38,360	38,718	41,600
	취업률	(59.1)	(60.1)	(58.0)	(57.5)	(57.7)
	진학률	(9.1)	(8.8)	(8.7)	(8.5)	(8.2)
사회계열	졸업생 수	86,758	90,822	89,298	90,239	95,601
	취업률	(63.4)	(62.9)	(61.5)	(62.3)	(62.4)
	진학률	(3.3)	(3.3)	(3.2)	(3.2)	(2.8)
교육계열	졸업생 수	16,460	15,394	15,238	15,360	15,911
	취업률	(53.4)	(53.4)	(51.7)	(52.9)	(50.8)
	진학률	(4.6)	(5.6)	(5.2)	(4.8)	(4.6)
공학계열	졸업생 수	69,846	69,548	68,719	69,417	74,131
	취업률	(76.1)	(75.9)	(75.0)	(73.3)	(71.3)
	진학률	(11.0)	(11.4)	(11.8)	(12.3)	(11.5)
자연계열	졸업생 수	35,816	35,145	35,257	36,529	38,895
	취업률	(62.8)	(63.0)	(61.7)	(61.9)	(61.6)
	진학률	(17.9)	(18.7)	(19.3)	(19.8)	(17.9)
의약계열	졸업생 수	14,698	15,558	15,041	16,992	19,988
	취업률	(84.9)	(83.8)	(81.4)	(81.4)	(83.2)
	진학률	(4.1)	(4.4)	(3.3)	(2.9)	(3.1)
예체능계열	졸업생 수	32,397	33,377	33,039	34,351	36,281
	취업률	(55.5)	(60.8)	(61.4)	(59.6)	(61.0)
	진학률	(8.1)	(7.6)	(6.9)	(6.8)	(6.8)

주 : 진학률은 총 졸업생 중 상급학교 진학자의 비율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제 DB연계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계열이 3개 학과(철학·윤리학, 역사·고고학, 심리학)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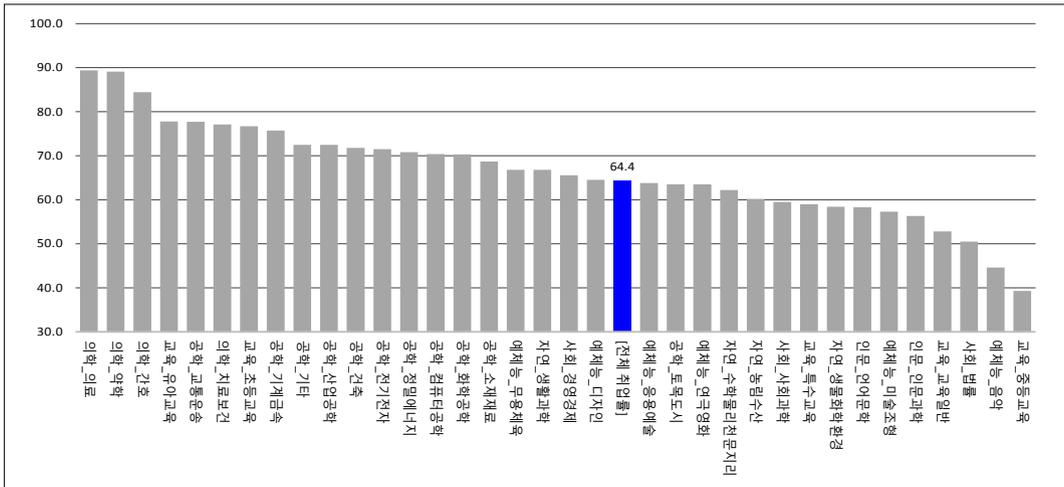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들만으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예체능(41.3%), 교육(42.4%), 인문(46.9%) 순으로 낮은 취업률을 기록함.

– 더욱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중 상당수가 1년 이내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는데, 인문계열의 경우 그 비율이 31.0%에 이룸. 즉, 2015년 인문계열 전공 졸업자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15,253명의 31.0%에 해당하는 4,728명이 1년 이내에 가입 자

격을 상실한 것으로, 낮은 취업률도 문제지만 취업된 졸업자들의 이탈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2015년 전공별(중분류) 신규 대졸자 취업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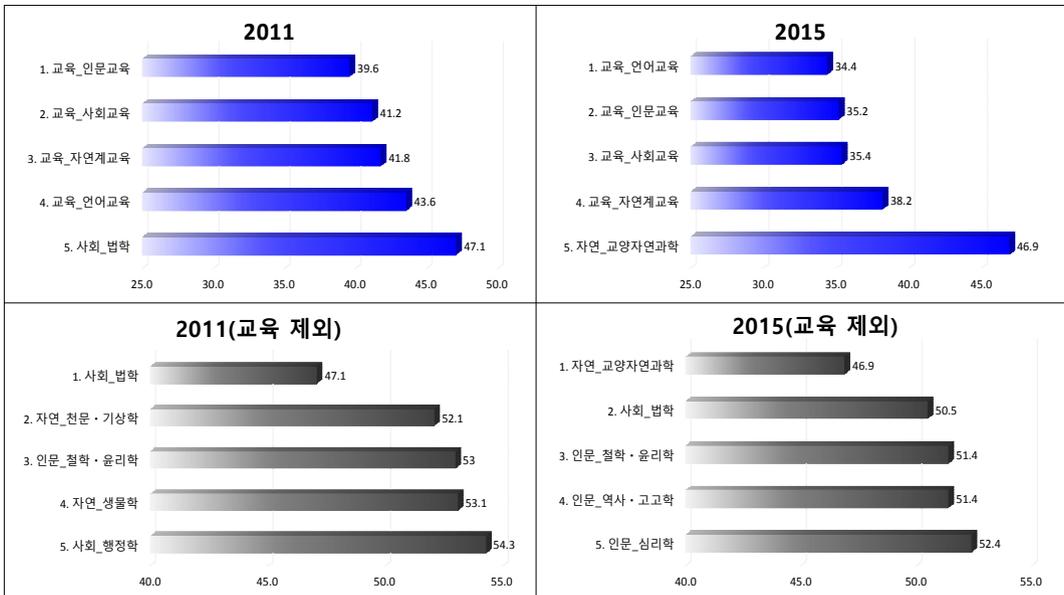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연보」.

[그림 2] 2011년, 2015년 신규 대졸자 세부 전공별(소분류) 취업률 하위 5개 학과 현황

(단위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익년 6월까지 1년 동안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취업자만으로 취업률을 계산해 보면 의약계열 63.4%, 공학계열 56.0%를 기록하는 반면, 교육계열과 인문계열은 약 32%로 2015년 신규 졸업생 중 약 32%만이 1년 동안 직장건강보험 가입 취업자로 남았음을 알 수 있음.

○ 청년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신규 졸업자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교육계열과 인문계열 졸업자의 경우 취업률 자체도 낮은 수준이지만 취업 이후 이탈률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KLI**

〈표 2〉 2015년도 신규 대졸 직장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자격 유지 현황

(단위 : 명, %)

	직장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직장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 ⁴⁾	6개월 이후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률	1년 이후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률
전 체	146,891	(56.6)	(8.8)	(24.4)
인문계열	15,253	(46.9)	(11.8)	(31.0)
사회계열	45,144	(56.3)	(8.9)	(24.1)
교육계열	6,274	(42.4)	(7.2)	(24.5)
공학계열	39,196	(67.5)	(6.3)	(17.1)
자연계열	15,267	(53.2)	(10.2)	(28.1)
의약계열	13,452	(81.0)	(6.9)	(21.7)
예체능계열	12,305	(41.3)	(14.3)	(39.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연보」.

(김중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4) 건강보험 가입 취업률은 졸업자들 중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외국인유학생 등을 제외한 인원 대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함.